

태화 8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평생학습체계’ 전문성강화 방안

태 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5일 복지관 지하강당에서 태화 8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조직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수서 10주년 사업보고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의 ‘사회복지인력의 역량강화와 평생학습조직화’ 주제강연, 뉴페러다임센터 이채수 위원의 ‘평생학습조직 추진방향’ 강연, 현장사례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주제강연을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 및 소외계층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새로운 사회환경이 전개되고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정보-지방정부, 정부-민간 역할 변화, 정부 및 복지계 전반의 혁신이 지속되면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방안으로 평생학습체계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이태수 원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계의 변화상으로 복지제도의 충실성 확보,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귀결 등을 꼽았다. “현장보수교육과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변화는 시설운영과 기능의 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제도의 적절한 대응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복지국가의 구축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을 평생학습조직으로 바꾸어 적절한 교대제를 적용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수



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이태수 원장은 “현장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민간복지인력의 현장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사회복지민간 종사인력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4.5년에 1회 교육을 받고있다”며 현 교육체계 현황을 밝히고 “현장 보수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기회 절대적 부족,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부족,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제도의 면화에 민감하게 대응되는 교육훈련 기회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태화복지재단 85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TIP

평생학습체계란?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일과 학습이 결합된 지식근로자로 양성하여 지속적인 자아성장과 직무관련 전문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직장의 상생문화를 구축하고 긍정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